



지난 10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광주 FC와 인천 유나이티드의 K리그 클래식 28라운드 경기에서 본즈의 슈팅이 상대 수비수 손에 맞고 있다. 주심과 비디오 판독 심판이 핸드볼 파울을 선언하지 않아 오심 논란이 일고 있다. <중계화면 캡처>

# 또 오심 논란...광주 FC 승리 놓쳤다



### 10일 인천전 상대 수비수 핸드링 파울 인정 안돼 3월 '광주전 오심'에 도입한 비디오 판독 무용지물 연맹 "오심 여부 확인 못해줘" 부인도 시인도 안해

오심 홍역을 치르고도 정신 못 차린 'K리그'다. 이번에도 광주 FC가 희생양이 됐다. 최하위의 광주 입장에서 지난 10일 열린 10위 인천과의 원정경기는 사실상 '승점 6점'이 걸린 경기였다. 광주는 이날 0-0 무승부로 오랜만에 승점 1점을 보냈다. 5연패에서는 탈출했지만 웃지 못한 광주였다. 판정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승점 3점을 보태며 인천을 압박할 수 있는 경기였기 때문이다. 후반 39분 상황이 눈에 밝힌다. 왼쪽에서 치고 오던 광주 '캡틴' 송승민이 후방에서 골대를 노리던 본즈에게 패스를 했다. 본즈가 침착하게 공을 잡아 슈팅을 날렸지만 공이 골대를 비껴갔다. 인천 수비수가 빠른 손에 공이 맞으면서 방향이 틀어진 것이다.

광주 선수들이 핸드링 파울을 강하게 어필했지만 비디오 판독은 이뤄지지 않았다. 연맹이 자랑하던 비디오 판독 시스템도 무용지물이었던 경기에 광주는 땅을 쳤다. 중계 화면으로도 명백히 확인할 수 있었던 핸드볼 파울 장면. 연맹이 비디오 판독 도입을 서둘렀던 배경에 '광주전 오심'이 있었기에 더 한숨이 나오는 오심이다. 지난 3월 K리그는 시즌 시작과 함께 오심 논란에 휩싸였다. 3월 19일 클래식 3라운드 경기에서 서울 원정길에 올랐던 광주 선수들은 상대를 압도하는 경기를 하고도 패자로 눈물을 흘렸다. 전반 5분 조주영의 선제골로 기선을 잡은 광주는 후반에도 서울 공세를 뚫으며 경기를 끌어들였다. 그러나 후반 16분 페널티 박스 측면에서 올린 서울 이상호의 크로스가 광주 수비수 박동진의 옆구리에

맞았고, 주심이 서울의 페널티킥을 선언했다. 박동진의 팔에 공이 맞았다는 판단이었다. 명백한 오심 속에 서울 박주영이 키커로 나서 동점골을 넣었고, 오심에 항의하던 박동진은 경고 카드까지 받는 등 경기는 엉망이 됐다. 결과는 광주의 1-2 역전패였다. 이날 광주 기영욱 단장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경기가 끝난 후 기자들 앞에 섰다. 지난 시즌에도 33라운드 서울전 페널티킥 오심으로 첫 6강의 꿈이 무산되는 등 여러번 오심에 시달렸던 만큼 기영욱 단장은 작심하고 발언을 했다. 이후 기영욱 단장은 '기자회견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심판 판정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을 했다'며 한국프로축구연맹(연맹)으로부터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그리고 오심을 인정할 연맹은 부심 퇴출, 주심 무기한 경기 배정 징계 징계를 내린 뒤 "이번 조치는 오심을 최소화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리그를 만들기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며 "하반기 비디오 판독 도입을 통해 승패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대한 판정 정확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언급했었다. 광주전 오심 논란이 발단이 되어 연맹은 비디오 판독 시스템 도입에 속도를 냈지만 또 오심 논란이 터졌다. 이번에도 광주전 핸드볼 파울이다. 이에 연맹 관계자는 "사후 심판 평가 회의 등을 하면서 인천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해당 심판의 징계 여부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 문제가 된 장면에 대한 경기 분석 과정에서 팔을 뻗었다고 보기에 어렵다는 의견들도 나왔다. 오심 여부에 관해서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연맹은 오심과 관련해 부인도 시인도 하지 않았지만 해당 경기의 주심과 비디오판독 심판에 대한 징계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유소연



박성현

## 유소연·박성현 에비앙 챔피언십 1·2R 한 조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를 달리는 유소연(27)과 3위 박성현(24)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 1·2라운드 같은 조에서 대결한다. 13일 LPGA 투어 홈페이지에 공지된 대회 조 편성에 따르면 이들은 세계랭킹 2위인 렉시 톱스(미국)와 함께 1·2라운드를 치른다. 세계 1~3위 선수가 이틀간 함께 경기하는 것이다. 이들은 한국시간 14일 오후 3시 18분 프랑스 에비앙 레 뱅의 에비앙 리조트 골프클럽 10번 홀에서 출발한다. 세 선수는 올해 LPGA 투어에서 2승씩을 거뒀다. 메이저대회 중엔 유소연이 ANA 인

스퍼레이션, 박성현이 US여자오픈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톱스는 이 대회 이전 열린 인디 위민 인 테크 챔피언십에서 시즌 두 번째 우승을 거뒀다. 올해 브리티시 여자오픈에서 첫 메이저대회 정상에 오른 김민경(29)은 리디아 고(뉴질랜드), 브룩 헨더슨(캐나다)과 함께 14일 오후 3시 29분 10번 홀에서 경기를 시작한다. 위민스 PGA 챔피언십 우승자 대니얼 강(24)은 김세영(24), 찰리 힐(잉글랜드)과 같은 조에서 경기한다. 디펜딩 챔피언 전인지(23)는 평산산(중국), 에리아 주타누간(태국)과 1·2라운드에서 동반 플레이한다. <연합뉴스>

## LPGA 10월 상하이 대회 돌연 취소

### "中 지방정부 허가 문제 탓"

오는 10월 5~8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릴 예정이던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알리스포츠 LPGA 토너먼트가 개최를 한 달도 채 안 남기고 갑자기 취소됐다. AFP 통신에 따르면, 마이크 완 LPGA 커미셔너는 13일 성명서에서 "올해 상하이에서 대회를 열지 않는다고 발표해야 해서 심히 유감스럽다"며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그는 "불행히도 우리는 방금 대회가 지방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들었다"며 대회 취소가 중국 지방정부의 허

가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LPGA는 지난해 10월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의 알리스포츠와 협력해 10년간 중국 본토에서 LPGA 투어 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대회는 지난해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레인우드 LPGA 클래식'을 계승한 것이다. 지난해 김민경이 우승했다. 완 커미셔너는 "타이틀 스폰서, 주최자, 방송 제작진, 경기장이 모두 준비돼 있었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 중국에서는 이런 스포츠 행사는 여러 승인을 받지 않으면 열릴 수 없는데 지방정부의 승인이 거부당했다. 매우 실망스럽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 롯데전 5연패 굴욕 씻기...이민우 깜짝 선발



안치홍 홈런 13일 인천 SK행복드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인천 SK 와이번스와 광주 KIA 타이거즈의 경기. 3회초 KIA 공격 무사 2·3루 상황에서 KIA 안치홍이 좌익수 뒤 홈런을 친 뒤 베이스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 KIA 하반기 스윙패...헥터·양현종 2패씩 떠안아

### 1위 확정 vs 3위 도전...시즌 마지막 사직 2연전



2017 시즌의 성과와 흥행의 키를 쥐고 팀이 맞붙는 '사직 빅뱅'이다. 1위 KIA 타이거즈는 14·15일 사직에서 롯데 자이언츠와 올 시즌 마지막 대결을 한다. 4위 롯데전 후반기 성적만으로는 1위 KIA를 압도한다. 전반기에는 KIA가 8승 1패로 상대 전적에서 롯데에 절대적인 우위를 점했다. 하지만 시즌 마지막 2연전을 앞둔 현재 KIA의 롯데전 성적은 8승 6패다.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안방에서 열린 후반기 첫 주말 시리즈에서 롯데에 싸늘이 3연패를 당하며 휘청거렸던 KIA는 지난 8월 22일과 23일에도 역시 안방에서 연패를 기록했다. 롯데전 5연패에서 양현종과 헥터가 각각 2패씩을 가져갔다. 전반기에는 KIA가 8승 1패로 상대 전적에서 롯데에 절대적인 우위를 점했다. 하지만 시즌 마지막 2연전을 앞둔 현재 KIA의 롯데전 성적은 8승 6패다.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안방에서 열린 후반기 첫 주말 시리즈에서 롯데에 싸늘이 3연패를 당하며 휘청거렸던 KIA는 지난 8월 22일과 23일에도 역시 안방에서 연패를 기록했다. 롯데전 5연패에서 양현종과 헥터가 각각 2패씩을 가져갔다. 전반기에는 KIA가 8승 1패로 상대 전적에서 롯데에 절대적인 우위를 점했다. 하지만 시즌 마지막 2연전을 앞둔 현재 KIA의 롯데전 성적은 8승 6패다.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안방에서 열린 후반기 첫 주말 시리즈에서 롯데에 싸늘이 3연패를 당하며 휘청거렸던 KIA는 지난 8월 22일과 23일에도 역시 안방에서 연패를 기록했다. 롯데전 5연패에서 양현종과 헥터가 각각 2패씩을 가져갔다. 그러나 후반기 KIA는 롯데에 치명타를 입으면서 흔들렸고 롯데는 KIA전 스윙을 발판 삼아 대반전에 성공했다.

KIA는 2위를 8경기 차 밖에 두고 후반기 시작하면서 빠르게 매직 넘버를 줄여갈 것으로 예상했었다. 현실은 2위와 3.5게임 차의 아직은 알 수 없는 1위다. KIA는 12일 경기까지 21승 1무 21패를 기록하면서 후반기는 제자리걸음이었다. 반면 롯데는 무섭게 후반기를 내달렸다. 12일 경기까지 31승을 쓸어 담은 롯데는 15패 1무로, 후반기 승률 0.674의 고공행진을 했다. 4강 굳히기에 성공한 롯데는 3위 자리까지 넓히고 있다. 후반기 첫 만남에서 같이 었갈린 두 팀은 1위 확정과 3위 도전이라는 목표를 두고 사직에서 마지막 대결을 벌인다. 전반기를 대표했던 팀과 후반기의 뜨거운 팀의 대결 결과에 따라 1위와 4위 싸움의 양상이 달라질 전망이다. 한편 KIA는 선발진 공백에서 14일 '에비앙' 이민우라는 깜짝 카드를 내세워 롯데를 상대한다. 순천 효천고와 경성대를 졸업한 이민우는 지난 2015년 KIA의 1차 지명을 받은 '중고 신인'이다. 입단과 함께 팔꿈치 수술을 한 뒤 공익근무 요원으로 복무한 이민우는 지난 4월 소집해제가 되면서 마운드로 복귀했었다. 올 시즌 퓨처스리그에서 14경기 나와 5.97의 평균자책점으로 5승 3패를 기록했고, 지난 8월 처음 1군에 등극했다. <김여울기자 wool@>

## 김현수, 9회말 동점 안타

### 필라델피아 연장 승리

김현수(29·필라델피아 필리스)가 눈앞에서 빅리그 첫 끝내기 안타를 놓쳤다. 김현수는 13일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 시티즌스 बैं크 파크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2017 메이저리그 마이애미 말린스와 홈경기에서 6-7로 끌려가던 9회 말 1사 만루에 대타로 타석에 섰다. 필라델피아 이적 후 가장 결정적인 상황에서 교체 투입된 김현수는 마이애미 우완 카일 바리크로의 시속 153km 포심 패스트볼을 잡아당겨 우익수 앞 안타를 터트렸다. 3루에 있던 닉 윌리엄스가 홈을 밟아 동점이 됐고, 곧바로 2루에 있던 대주자 세사르 에르난데스도 홈 플레이

트를 점했다. 주심이 셰이프 판정을 하면서, 필라델피아 선수들은 김현수를 둘러싸고 유니폼을 찢으며 격한 축하를 했다. 이때 마이애미 벤치에서 포수의 태그가 빨랐으며 캘린지를 신청했다. 판정은 번복됐고, 김현수의 안타는 2타점 역전 끝내기였다. 김현수는 이번 시즌 31일 소프트뱅크 호크스전 이후 12일 만이자 올 시즌 세 번째였다. 이날 오타니는 올 시즌 가장 빠른 163km의 공을 던지는 등 구위를 회복해가는 모습이다. 47개의 홈런을 기록하고 있는 오타니는 이날 개인 통산 40승(15패)을 채우며, 통산 40승-40홈런도 이뤘다. <연합뉴스>

## 투타 병행 日 오타니 통산 40승-40홈런

'팔방미인' 오타니 쇼헤이(23·닛폰햄 파이터스)가 뒤늦게 시즌 첫 승리를 거두고 일본프로야구 사상 네 번째로 개인 통산 40승-40홈런을 달성했다. 오타니는 지난 12일 홋카이도 삿포로 돔에서 열린 라쿠텐 골든이글스와 홈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5.2이닝동안 1안타와 볼넷 3개만 내주고 삼진 4개를 뱉으며 7-0 경기의 승리투수가 됐다. 오타니로서는 지난해 9월 28일 세이부 라이언스전 이후 349일 만의 승리다. 투수와 타자를 병행하는 오타니는 오

른발목과 왼 허벅지 근육을 잇달아 다쳐 올 시즌은 정상적으로 치르지 못했다. 최근에는 타자로 맹활약하고 있지만 마운드에 선 것은 이번이 지난날 31일 소프트뱅크 호크스전 이후 12일 만이자 올 시즌 세 번째였다. 이날 오타니는 올 시즌 가장 빠른 163km의 공을 던지는 등 구위를 회복해가는 모습이다. 47개의 홈런을 기록하고 있는 오타니는 이날 개인 통산 40승(15패)을 채우며, 통산 40승-40홈런도 이뤘다. <연합뉴스>